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8.(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8일(수)부터		
담당부서	경제문화전문위원실	**담당자**	장래복 사무관(044-300-7531) 김다현 주무관(044-300-7534)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조례안 등 14건 심사… 농업인 지원 범위 확대

-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초과자 지원 연령 45세에서 50세로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18일 제110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김창연 위원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 20명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

업 수행에 우려를 표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윤성규 위원은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의 공공위탁이 늦어진 사유를 확인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위탁받는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각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역사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윤성규 위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 농업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의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총 14건 중 11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